금주의 법구-〈출요경〉
낮과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세월의 빠르기는 번개와 같으니
사람의 목숨 빠르기도 그러하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2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40호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 갈등 원인은 '마음'… 내려놓고 화합하자

## 시 론

대통령이 파면됐다. 그러나 광장엔 아직도 깃발이 펄럭인다. 광장이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던 곳이다. 전통은 로마로 이어져 광장은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

유럽에서는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다. 광장의 가장 좋은 곳에 성당을 짓는다. 성당의 맞은편에 시청이 있다. 하늘의 권능과 지상의 권능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광장과 성당과 시청. 이것은 도시의 심장이다. 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산다.

동양에는 광장이 없다. 그 대신 대로(大路)가 있다. 대로. 왕이 다니는 길. 왕도(王道)다. 왕의 행차가 없는 평상시 백성들이 이용하지만 모든 것이 왕의 소유였던 시대. 대로는 왕의 길이었다. 대로를 중심으로 소로(小路)들이 뻗어나가 도시를 이루었다. 생래적 직접 민주주의의 전통이 없는 동양에서는 광장도 없었다. 오직 절대자와 그 통치를 받드는 신민들이 있을 뿐이었다.

동양의 광장은 이후에 만든 것이다. 도시의 기능상 미관과 시민 휴식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이 그러하고, 서울의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이 그러하다. 도쿄에는 아예 그런 광장이 없다.

그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이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보도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지지하는 시위대에 의해 광장이 점거당한 것이다.

광화문 쪽의 시위대는 결박당한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인형을 들고 나왔고, 단두대와 처형당한 모습, 상여 등의 끔찍한 모습들이 등장했다. 이석기 前 의원을 석방하라는 정치적 구호도 등장했다.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사태**
**양분된 사회, 이젠 하나돼야**
**우리는 우리를 믿어야 한다**
**한국의 저력, 우리에게 있다**

시청 앞의 시위대는 광화문 쪽을 빨갱이들이라고 매도했다. 대부분 나이든 세대인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의 가치관을 무시당했다며 분노했다. 군복과 군가가 등장했으며 젊은 기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두 시위대 사이에는 경찰 버스가 막아섰다. 북쪽과 남쪽을 가로막은 분계선이었다. 그 상징성이 보는 이의 마음을 쓰리게 했다.

두 집단의 대화는 불가능했다. 북쪽은 남쪽을 '틀딱(틀니 딱딱)'이라고 매도했다. 남쪽은 북쪽을 '좌좀(좌익좀비)'이라고 비하했다. 이 같은 대립은 심각한 세대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양 진영에서는 마침내 자살자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스님이 소신공양했고, 시국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60대가 투신했다.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의견 대립도 있었다. 부모와 대화하다 "말이 안 통한다"며 뛰쳐나가는 자식. 고생하며 부족한 것 없이 길러냈더니 배신감을 느낀다는 부모도 있다. 오랜 친구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태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익혀 소통하는 현상도 보였는데 이 문자 소통이 갈등의 요인도 됐다.

대통령은 파면되고 갈등만이 남았다. 이제 국민들이 오롯이 안고 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파면 후에도 청와대를 바로 떠나지 않다가 사흘만에 자택 앞에서 환히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많은 이를 당황케 했다. 도대체 오랜 다툼의 결과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은 커녕 탄핵 반대 시위 중 사망한 3명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른 아침, 미용사는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위해 몸 던져 법정 변론을 하고 사재를 털어 신문 광고를 내던 변호사는 문전박대했다. 죽은 이들, 변론한 이들, 그들은 누구를 위해 그토록 싸웠단 말인가?

대통령 탄핵 소식을 나는 대구 동화사에서 들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재취임 회견을 위해 BTN불교TV 녹화팀과 함께한 자리에서였다. 소식을 접한 종정 스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셨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마음 때문이라고 하셨다. 마음 한 번 잘못 먹음으로써 비극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씀이었다.

한 시간 동안의 회견에서 종정 스님은 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현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참선에 있다는 말씀이었다.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이 참선의 세계화에 있다시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세대 갈등도, 가족 갈등도, 친구 갈등도, 진영 갈등도 그 원인은 마음이다. 우리는 이제 갈등을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이후, 주가를 연중 최고치로 끌어올려 실물 경제가 끄덕없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나라이다. 광화문과 시청 앞에는 주말 시위대들이 들끓으면서도 큰 사고는 없었고, 인천 공항에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저력을 보여주는 나라이다. 이 힘을 보여주는 것은 지도자들이 아니다. 너와 나, 일반 국민들이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미증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빚어낸 갈등을 씻고, 다음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사랑스런 후손들이 살아갈 소중한 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유자효
(시인 · 언론인)



**도심 속 천년 고찰에 봄이 오다**

도심 속 천년고찰 봉은사에 봄빛이 완연하다. 3월 15일 봉은사 영각 앞은 꽃망울을 터트린 홍매화를 사진으로 담기 위한 상춘객들로 붐볐다. 겨울 외투를 벗어 던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이들의 모습에서 행복이 비친다.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기대와 설렘이 번져나간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핵심 승려복지 '건강검진' 제공

## 승려복지회 · 전국비구니회 · 동국대의료원 MOU
## 종단소속 모든 승려 대상, 원활한 수행생활 지원

**형편 어려운 스님 사전 검진**
**실무위원회 꾸려 본격 논의**
**대기실 · 병실 구분 두는 등**
**편안한 진료방안 모색한다**

출가수행자의 수행 · 포교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인 건강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조계종이 동국대의료원과 함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와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 동국대의료원(원장 오민구)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안정적인 수행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고,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3자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단체들은 △수행생활과 포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 △동국대의료원이 스님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각 기관 협력과 지원 △형편이 어려운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전 건강검진 제공키로 합의했다. 또한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 분담한다.

협약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스님들의 특정 질환 검진을 돕자는 취지서 시작됐다. 특히 비구니스님들은 여성질환이 발생했을 때 부인과 진료를 마음편히 받게 어렵다는 호소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에 승려복지회와 전국비구니회가 동국대의료원에 협력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졌다.

협약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대상 범위를 조계종 소속 모든 출가수행자로 포괄 · 적용한 점이다. 그간 승려복지회의 치료비 지원사업이 발병 이후 돕는 사후적 성격이었다면 이번 협약은 예방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스님들의 원활한 건강검진을 돕기 위해 동국대일산병원이 현재의 일반인 대기실과 병실에 일정 정도 구분을 둘 예정이다.

승려복지회 관계자는 "스님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스님들이 부인과 · 비뇨기과 진료를 받는 데 오해의 시선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인과 대기실을 달리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병실 한 칸을 스님들만 입원할 수 있게 조정하는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각 단체는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장검진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방에서 접근성이 낮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해 강원 등 인원규모가 큰 곳을 방문해 검진을 돕겠다는 것이다. 실무논의서는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진료차 등에 관한 언급도 있었지만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의 진료봉사 등과 중복되지 않게 일정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협약식에서 승려복지회장 지현 스님은 "집행부 핵심과제로 2011년 출범 이후 6년째를 맞았다. 그간 해오지 않았던 승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스님들이 노후나 병원 등 걱정 없이 포교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민구 동국대의료원장은 "스님들께서 병원 진료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스님들이 검진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일을 많이 접했다. 건강하게 수행생활을 하실 수 있게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특별한 통보가 없을 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된다. 윤호섭 기자

봄꽃 산사부터 축제 · 템플스테이까지… 특집 섹션 '봄, 花寺하다' B1~7면



대한불교조계종 제14대 종정
眞際 法遠 大宗師 추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4대 종정 眞際 法遠 大宗師의
추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일 시
불기 2561(2017)년 3월 27일 (월) 오후 2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 추대법회에 참석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장삼과 종단 대가사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 추대법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후 1시까지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